

‘워크빌리지 곡성’ 생활인구 유입...지역경제 ‘활기’

3년간 184개 기업...재방문 의사 98% 곡성한달살기·‘리스틱타운’ 하반기 준공

곡성군이 ‘워크빌리지 곡성’ 시즌3를 시작하며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에 활기가 띠고 있다.

1일 곡성군에 따르면 ‘워크빌리지 곡성’은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수도권 기업들이 곡성에 내려와 지역 순환 근무 형태로 위케이션을 하며 지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위케이션을 통해 곡성에 생활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으로써 체류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인구 대응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실제 곡성에 위케이션을 통해 유입된 생활인구는 시범운영 기간을 포함해 지난 3년에 걸쳐

참여기업 184개, 총 이용객 1천100명 이상이 다녀갔으며, 경험자들의 재방문 의사가 98%에 육박했다.

올해는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심청한옥마을 내 곡성 위케이션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들은 스타트업, 비영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참여자도 위케이션 이용이 가능하다. 6월부터 시작되는 ‘포레스트 캠프’는 기업 위케이션과는 달리 전문 직무군(개발자, 디자이너, 작가, 프리랜서 등)을 기제로 선발해 5박6일 동안 곡성에 지내면서 지역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12월까지 총 10기수(기수당 14명)를 진행할 계획이며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곡성한달살기’(먼슬리 리스틱타운 한달살이)



‘워크빌리지 곡성’ 시즌3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심청한옥마을 위케이션 공간에서 체류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인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올해 초 고향올래 사업비 10억원 중 특교세 5억원을 들여 심청한옥마을 송정관 일부를 4인

이상 동시 수용 가능한 협업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이 밖에도 기존 위케이션 관계기업들과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함께 워크숍 형태의 ‘리스틱타운 페스타’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및 로컬 비즈니스 과제를 발굴하고,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곡성에 ‘오프라인 베이스캠프’를 마련하도록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곡성군은 위케이션 생활인구가 장기체류하며 정주 인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삼기면 일원에 ▲리스틱타운(농촌유학 결합형 위케이션 기업마을) ▲지역활력타운(주거·생활인프라·일자리)을 조성 중에 있으며, 리스틱타운은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순만 인구정책과장은 “곡성에 기업들이 이주하며 장기체류와 지역 정착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이상적으로 일하는 곳, 곡성이라는 지역 브랜딩을 선점해 위케이션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고흥, 국내 최장 해저관로 도킹 성공...식수난 ‘청신호’

금산 오천-도양읍 시산도 4.23km

190여 주민·400여 근로자 수해

고흥군이 국내 최장 해저관로 도킹에 성공,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의 청신호가 켜졌다.

1일 고흥군에 따르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양읍 시산도 상수도 공급사업에서 국내 최장 해저관로(4.23km) 도킹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현재 추진 중인 시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27억원을 투입해 해저 관

로 4.23km, 육상 관로 5.37km, 통합 배수지 1개소 등을 정비하는 대규모 상수도 기반 사업이다.

특히 이번 도킹 구간은 국내에서 가장 긴 단일 해저 상수관로 구간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도킹 완료는 금산면 오천마을에서 도양읍 시산도까지 해저를 통과하는 장거리 관로 설치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를 극복한 성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조기 공급 기반 마련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도양 시산도는 13세대 190명의 주민과 400여

명의 김양식 상시근로자가 거주하는 도서 지역으로 오랜 기간 지하수 고갈 및 염분 유입 등으로 인한 수질 악화와 생활용수 부족 문제를 겪어왔다.

이에 고흥군은 시산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맑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지난해 5월 공사를 착공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해저관로 도킹 성공을 계기로 2027년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담양군은 지난달 30일 정철원 담양군수와 최영일 순창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탁식을 갖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순창군, 상호 고향사랑기부

구곡순담협 통해 상생 협력

담양군은 “지난달 30일 정철원 담양군수와 최영일 순창군수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의 지역에 기부하며 두 지역 간 협력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담양군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양 지자체 군수와 공무원들이 함께해 지역을 향한 따뜻한

한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를 내놨다.

두 지역은 그동안 담양호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차수벽 철거 등 광역 경계를 넘어선 협업으로 다양한 성과를 이뤄왔다.

또한 곡성·구례군과 함께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고흥화 대응과 노인 복지 분야에서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

올해 구곡순담 정기회의에서는 장수노인 대

상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 치매 조기예측 서비스 도입, 노인복지정책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실제 어르신 체육대회, 100세 잔치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상호 기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지역 간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순창군과 함께 생활권을 공유하는 이웃 지자체로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초여름밤 낭만 ‘순천 비어페스타’ 돌아왔다

14일 오후 5시부터 오전그린광장서

‘2025 순천 비어페스타’가 오는 14일 오전그린광장에서 개최돼 초여름밤을 청춘의 흥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포스타>

1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춘여행길잡이와 공동 기획으로 처음 선보인 순천 비어페스타는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 도심형 여름 축제의 신봉 강자로 떠올랐다.

올해는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함께 돌아와 무더위 속 오전 그린 광장을 시민의 거실이자 여름밤 낭만의 무대로 물들일 예정이다.

축제는 14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된다. 먼저 19세 성인 인증을 마친 사람들이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지역 수제 맥주 부스가 운영된다. 부스에서는 맥주 판매뿐만 아니라 시음 행사, 비어 톨렛 돌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이러 오후 7시부터는 EDM 파티, 라이브 공연, 이색 체험 부스, 영화상영 등이 이어진다.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들로 한여름 밤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지역 상권인 오전 상가 번영회와 연계를 강화해 치킨뿐 아니라 다양한 음식(치킨·피자·족발 등)들을 배달비를 뺀 착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직접 전화 주문 시 배달비 무료 혜택이 제공되며, 배달 어플 주문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2일까지 ‘SNS 챌린지 100’을 통해 사전 참가자 모집 이벤트가 진행된다. 사전 참가자는 총 100팀을 모집하며, 선정된 100팀에게는 돗자리와 치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및 순천 관광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 비어페스타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시민과 지역 상권이 함께 만드는 도시형 문화 콘텐츠로 성장 중”이라며 “앞으로도 순천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정기 기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종합실행계획 본격 착수”

7개 전시관 조성...참여형 콘텐츠 제공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최근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 대책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종합실행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착수보고회에는 조직위원장인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총감독단, 시의원, 이사회 이사 및 자문위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조직위는 공개입찰을 통해 ㈜MBC플러스 컨소시엄을 운영 대행사로 최종 선정했다.

운영 대행사는 박람회장 운영 전반은 물론, 행사 기획과 전시 연출 등 다양한 분야의 세부 콘텐츠를 구체화하는 종합실행계획과 행사 종료 후 사업 정산까지 박람회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용역 착수 보고에는 ▲박람회장 조감도 및 세부조성계획 ▲주제관 및 전시관 세부연출 방향 ▲사전 및 공식행사 연계를 ▲운영 인력 및 안전관리 계획 등 행사 전 분야 과업 추진 방향이 포함됐다.

주행사장은 주제관, 섬해양생태관 등을 포함한 총 7개의 전시관이 조성될 예정이며, 한국의 섬, 세계의 섬 등 국내외 주요 섬을 주제로

한 섬 테마존도 함께 운영된다.

전시관은 섬의 가치, 위기치유, 미래발전을 기본 방향으로 몰입형 미디어 아트와 참여형 콘텐츠 등 예술적·기술적 기법으로 연출될 계획이다. 전시관 주변으로는 다양한 예술작품을 설치하고,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참여형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행사장인 금오도에는 천연 자연경관을 경험할 수 있는 비렁길 스텝투어 및 섬 캠프 패키지를 운영하고, 개도에는 섬어촌 문화센터를 조성, 다양한 미디어 영상을 관람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D-365 등 사전행사와 개막식 등 공식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관객역 예측에 따른 동선관리 계획은 물론 안전관리, 외국어 응대, 스마트·친환경 운영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도출됐다.

보고회에서는 바다 체험 확대, 전시관 사후활용 방안, 2025엑스포 기념 콘텐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조직위는 이를 검토 및 구체화해 오는 7월 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운영대행사 선정으로 박람회 준비가 본격화됐다”며 “국내·외 관람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포슬한 식감’ 보성 햇감자 본격 수확

대한민국 대표 감자 주산지인 보성군이 본격적인 불햇감자 수확철에 돌입했다. <사진>

1일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 감자는 해풍을 맞고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 깊은 맛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며 프리미엄 감자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보성군의 1천여 농가가 920ha에 달하는 재배 면적에서 감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예상 생산량은 약 1만5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성 감자의 경쟁력은 균일하고 우수한 품질의 고품종 씨감자에서 시작된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생산·보급하는 고품질 씨감자는 병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뛰어나,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표 품종 ‘주백’을 비롯해 가공용 ‘대서’ 등 다양한 소비자 맞춤형 품종도 재배 중이다.

특히 특량·회천 지역 감자는 해풍 영향으로 전분 함량과 조직감이 뛰어나, 포슬포슬한 식감과 은은한 짭짤함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보성군은 수확된 감자를 도매시장뿐 아니라



보성군 온라인 직거래장터 ‘보성물’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신선하게 공급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씨감자 보급과 재배기술 지원 등을 통해 감자 품질향상에 힘쓰고 있다”며 “이상기후에도 강한 품종 개발로 농가 안정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